

다시 또 같이!

남북 문화교류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제1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일정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14:00 - 16:00

장소

서울대학교 220동 204호

주최 ·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목 차

발표 1	01
남북사회문화교류 재개 가능성과 최근 북한 문화예술 트렌드 소개 박계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2	11
남북 문화유산 교류 재개 모색 김경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발표 3	25
선군을 넘어 과학기술 중시 애민으로 : 김정은 시대(2012~24) 문학의 쟁점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좌담회	41

제1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발표 1

남북사회문화교류 재개 가능성과 최근 북한 문화예술 트렌드 소개

박계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강사 약력]



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박사

1994-2006 (재)성강문화재단부설 한국미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 연구-저서>

북한미술의 역사와 전통 (2023)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2020)

남북사회문화교류 재개 가능성과 최근 북한 문화예술 트렌드 소개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I.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서 시작하여 남북회담,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동서독이 1972년 체결한 「동서독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남북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 3년 간의 강대강 남북관계로 인하여 남북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한 상황을 감안하여 평화의 소중함과 남북 간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정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으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원칙을 제시 하였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II. 남북사회문화교류

1.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

남북문화교류는 왜 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진정한 통일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라는 질문과 연동되어 있다. 통일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여년의 세월동안 적대적으로 살아온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발생할 사회적 갈등이, 경제적 이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은, 남과 북 사이의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마음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으로 남북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남남갈등의 심화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자면, 지난 시기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 사례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적인 단발성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지양해야함은 명확해진다.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교류제도화를 이루어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공동기구 구성 및 공동의 준거틀을 만들어 법제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신

회회복을 위한 기본 토대로서 상호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의 축적 또한 중요하다.

2. 사회문화교류 정책

1).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문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성, 지속성,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법 등의 법률과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 증진,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정책 개발 및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 남북문화교류의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내부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남북사회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민관정책협의기구의 성격으로 민간에서도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또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민관 상호 소통 공간을 구축해서, 다양한 분야별 플랫폼을 설치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 사업자들간의 소통 및 정보 공유 활성화도 견인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사회문화거버넌스는 지자체까지 포함한 공공조직, 교육자치단체나 지방의 문화단체, 언론, 문화기업들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사이의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의 준거 틀을 만들고, 상호간에 법적 권한은 부여함으로써 제반 교류가 일시적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의 형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분야별 논의 채널을 분명히 하고 제도화해나가면서 사회문화교류 협정체결과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에 따른 정쟁적 요소를 줄임으로써 남남갈등의 부각이 아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4).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간 교류 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채널을 다시 복원, 재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몇 년간의 교류 중단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남북 접촉을 신고제의 방향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재개 가능성이 높은 교류협력 사업들을 설정하고 민간단체 및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모두 남북교류에는 그 과정에서 일상문화를 비롯한 사회문화교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경제교류로 분류되지만,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일상문화가 서로 만나고 부딪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였고, 한쪽의 문화에 스며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회문화교류를 주목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교류의 과정 속에서 발

생하는 사회문화교류를 데이터화하는 메뉴얼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교류의 과정에서 발행하는 사회문화 관련 데이터를 아카이브화하는 전략들을 교류의 실행 전단계부터 마련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3단계에서는 남북간 사회문화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일상화하기 위하여 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교류제도화를 이루어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공동기구 구성 및 공동의 준거들을 만들어 법제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재개 가능한가

현재 이 심포지움에서 제게 주어진 질문의 핵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사회문화교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사회문화교류를 재개해야만 한다.

현재 남북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 선언이 사회문화교류에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로 집중되는 것 같다.

남북은 1991. 9. 17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두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1991년 12월 남과 북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합의하게 된다. 이처럼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각 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적 권한을 유지한 채 통일정부를 구상하는 방안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의 이러한 전제는 ‘적대적 두국가’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듯 하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며, “남한을 전쟁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고도 했다. 2024년 1월 15일에 김정은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각종 상징물의 철거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 대화와 협력기구도 폐지했다.

2023년 12월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선언과 2024년 전반기에 빠르게 진행된 후속 조치들은 그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을 판단된다. 최근 2025년 8월 14일 발표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을 살펴보면 아직 ‘적대적 두국가’가 규약에도 반영된 적이 없고 헌법에도 반영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언술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이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10월이나 내년 1월에 9차 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 규약 개정할 때까지, 또는 헌법 계정을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¹⁾

현재적 상황에서 우선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협력적 또는 평화적 두개 국가론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통일논의를 다시 활성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1) 2021년 1월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개정된 당규약’을 발표했는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21년 당규약)에서 알 수 있듯이 그전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표현을 넣었고,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은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평화담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평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동 우선의 원칙이다. 상호주의 이전에 먼저 선제적 조치들을 해내야 한다. 이는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접경지역의 확성기 관련 조치들이, 9.19군사합의 복구와 같은 조치들은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가역적 조치일 경우, 일방적 선제적 평화 조치들이 평화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예측 가능성을 서로 만들어가는 상호주의가 신뢰구축 조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사회문화교류도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토대로한 신뢰를 위해서는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국민공감대이다. 첫 번째 조치들이 통일을 향해 힘을 갖기 위해서도 2번째로 이야기한 신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공감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들로 평화·통일 정책과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가칭)을 통일부에 설치하여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져온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상시 소통과 대화로 바꿔나가는 정책도 중요하다.

이처럼 평화공존, 상호존중, 국민참여를 핵심 축으로 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남북 사회문화교류 재개를 위한 정책 제안

○. 북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정책과 공동등재 전략 수립

(1) 북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최근 동향.

◇ 북한은 현재 △세계유산 2건 △무형문화유산 5건 △세계기록유산 2건, 총9건 보유

-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군('04), 개성 역사유적지구('13)

금강산은 올해 7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7.6~16.파리)에서 최종등재 결정

- (인류무형문화유산) 조선민요아리랑('14), 김치담그기전통('15), 씨름('18, 남북 공동등재), 평양랭면('22), **조선옷차림('24)**

-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17), 훈천전도('23)

※ 그 외

△생물권 보존지역 5곳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

△백두산, 세계지질공원 선정('25.4.) 등

※ 무형문화유산 '태권도'를 '24년 신청, 등재여부는 '26년 말 결정 예정

(2) 공동등재를 위한 움직임 필요

씨름의 예 (각각 단독등재 신청 후, 반려, 공동등재 권고, 공동등재 신청)를 숙고하여, 태권도 등의 경우, 이를 대비함으로써 공동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종교계와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

민간 부문이 다시 만나 대화하고, 작은 일부터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제이다. 천주교는 2027 서울 WYD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개최하여 세계평화 문제를 토론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교황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 북한 청년들의 초청, 교황님 북한 방문 등 교황청의 움직임을 통해 얼어붙은 한반도를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북 사찰의 공동 법회나 사찰 관광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한바 있다. 관련하여 이전의 신계사 복원 등과 같이 사찰 복원 등의 방식을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은 민간단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해외거점을 활용한 문화교류

(1)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전략.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를 비롯한 북한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기관과의 국제 연대

독일처럼 북한이 공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도시에서 주도적으로 남북문화교류를 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베를린 자유대에서 한국의 전통 서원 연구를 위해 북한 현지를 조사하며 연구하고 있는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확대해내는 방식, 북한의 학생들이 자유대학교로 연수를 나갔던 프로그램 등은 좋은 예를 제안하고 있다. 자유대학교의 예처럼, 한국과 북한과 독일과 그 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교류하고 연구하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남북문화공동체가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복원되고 창조된다는 점에서, 개방성과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독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국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체제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중립국에 한반도 문화예술센터를 만들어서 남북의 우수한 문화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제3국에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K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해외 박물관을 활용한 문화교류 : '코리아관' 운영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을 비롯하여 등 독일, 미국 등 해외 소재 박물관 내 한국실(24개국 68개처 이상)을 통한 남북문화재 및 큐레이터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해외 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관이 처한 문제는 전시할 국보급 문화재가 없어서 이를 시급히 발굴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담당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북한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해외박물관에서 전시함으로써,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아름다운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전시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민족의 문화적 우수

성 및 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홍보한다.

지금도 우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영박물관 한국관 등 해외 박물관 한국관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북한의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해외 박물관이 북한의 전문인력들을 해외박물관에 초청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들이 해외문화교류사업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해외박물관 인력들과 함께 중·장기간 일을 수행케함으로써 발달된 박물관 시스템 및 유물 보존, 전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익히고, 귀국 후 자국 내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시켜 내는 것이다. 동시에 해외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전문인력간의 교류가 국제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토론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활발한 토론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지자체와 민관이 협력하여 남북이 다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최근 북한문화예술의 트렌드 소개

1.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통속성의 강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방향 속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체제 결속 강화와 대외 개방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체제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이중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통속성'의 강화이다. 김정은 시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새로운 담론 하에서 보다 친근하고 접근 가능한 문화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상징하는 수령 형상이 '웃고 있는' 색조각상으로 바뀐 것이다. 2013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세워진 김일성 색조각상을 시작으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에는 모든 수령상을 웃고 있는 색조각상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웃음의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김정은의 '감성정치'와 결합되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코메디 장르인 '화술소품'(만담/재담) 장르의 지속적인 부각과 이를 토대로 대학에 화술소품학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다양한 방식의 화술소품 공연이 선보여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가 강조하는 '청년중시의 역사', '청년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웃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이들이 공연할 청년야외극장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동해의 송도원에 청년야외극장, 2019년 강계청년야외극장, 2020년 해주와 평안남도의 청년야외극장과 사리원 청년야외극장도 건설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제작한 화술소품의 재담, 촌극, 만담이 공연되고 있다. 웃음을 통한 교양이라는 것은 관객을 그 시공간 속에서 웃게 해야 한다는 교감이 문제가 항상 공연자의 고민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것은 쌍방향의 문제다.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발소 그림 스타일인 최문혁이 제작한 유화 『애국의 마음』(2015)이 기념비적 명작으로 부상함으로써 오늘도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인민들이 미술관에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2년 7월 창단된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 문화예술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첫 공연에서 하이힐과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들이 영화 '룩키' 주제곡과 '마이 웨이'를 연주하고, 미키 마우스와 백설 공주 같은 미국 만화 주인공들이 출현하는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영화정치'에서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벨기에, 미국, 중국과의 해외 합작영화가 연이어 개봉되어 주목받았다.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산너머 마을>, <평양에서의 약속> 등은 각종 국제영화제에 선보이며 문화교류를 통한 실리 추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재적 상황에서는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문화를 강력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통해 개방과 현대화를 추구했던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과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통한 경제 봉쇄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 구호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는 등 보수적 회귀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같이 벌어진 움직임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통속성 강화는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자, 변화하는 인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제일주의와 애국주의

2017년 등장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또 다른 핵심 문화정책과 연동되었다.. 이는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국기, 국장, 국화(목란), 국견(풍산개), 국조(까치) 등의 국가상징을 문화예술 작품과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애국주의를 문화예술과 결합시키는 움직임은 통속성의 강화라는 맥락과도 결합되었다. 국가상징 이미지를 학생들의 가방이나, 옷 디자인에 활용하거나, 국가상징 관련 행사를 저녁 때 개최함으로써 불꽃쇼, 미디어 파사드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이 그러하다.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은 김정은시대 들어와서 '조직화' '국제화' '과학화'라는 슬로건 하에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일련의 조치들 속에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 수용을 표방하며 대외 문화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또한 '통속성'의 강화 방향도 그 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문화예술 트렌드와의 동시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데몬헌터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반응은 K팝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만화가 주는 현재적 위상을 그려낸다. 이는 키치 미술에 대한 미술시장의 평가, 미술평단의 평가가 높아지고 일련의 흐름과도 연동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1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발표 2

남북 문화유산 교류 재개 모색

김경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강사 약력]



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참여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참여

<주요 연구- 학술논문>

유엔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2023)

남북 문화유산 교류 재개 모색

김경순(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시기별 남북문화유산교류의 전개

- 크게 네 시기로 분류

- 제1시기

-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
-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 근거하여 제3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측의 언론사 중심이었으며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중심이나 단일하지는 않음.
-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1993), 중앙일보 북한문화유적답사(1997),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촬영(1998), 북한 문화재 자료 정보화 사업(1998), 조선향토대백과 편찬(1999) 등이 역사, 문화유산 관련하여 진행
- 내용적으로는 고대사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나 답사를 비롯한 전근대 전 시기에 이르는 자료 교류 중심으로 진행

• 제2시기

-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2004년까지
- 6.15남북공동선언문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 직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측의 교류 주체가 다양해지는 반면 북측은 경제/비경제로 분류하여 남북교류 창구를 민경련/민화협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침.
- 대표적으로는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토론회(2002), 특별기획전 고구려!-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2002),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2003),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2004), 신계사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2004), 고구려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학술회의 및 전시회(2004), 북한사찰건축문화재실측조사(2004),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지표·시굴·발굴조사(2004) 등이 진행됨.
- 내용적으로는 고대사 교류에서 단군, 고조선 관련 내용이 줄어들고 직접적인 문화유산을 다루는 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음. 북측이 고구려고분군을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였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연결된 문화유산 분야 사업이 이어짐.

• 제3시기

- 2005년~2007년
-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진행되던 시기로 불안정한 당국 관계와 남북민간교류를 분리하여 진행되었으며, 제2시기에 이어 교류 주체의 다양화, 대형장기 사업의 등장과 전문화, 당국 간 문화유산 교류 등의 변화가 이뤄짐. 북측의 교류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비되며 민화협과 사업 수행 주체인 문화보존지도국이 협의에 처음부터 참여함.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거례말큰사전 편찬 사업 합의가 이 시기에 이뤄져서 착수하였으며, 그 외에 남북전통공예교류전(2005), 6.15공동선언발표 5돌과 조국광복 60돌 고구려유물전시회(2005),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학술조사(2005),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2005), 북관대첩비 반환(2005),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2006-2007), 안학궁발굴조사(2006), 북녘의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2006)이 대표적으로 진행됨.
- 내용적으로는 문화유산 장기 대여나 연차 사업 등 장기화, 대형화 기조 속에서 교류를 지속해온 남측의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이 두드러졌으며, 일회성의 학술대회가 줄어들면서 역사분야 교류가 문화유산 교류를 중심으로 재편됨.

● 제4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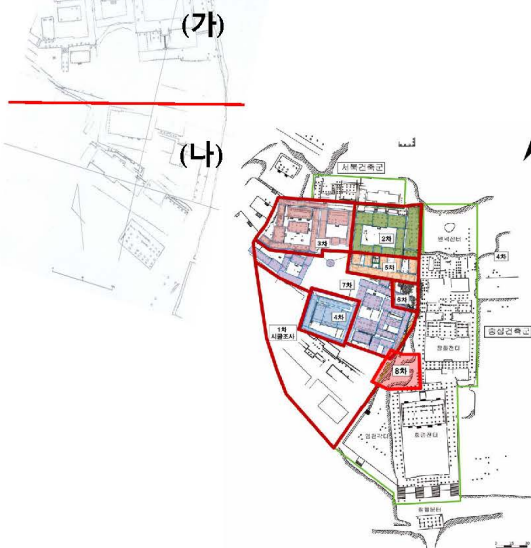
- 2008년~현재
- 북핵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남북교류가 축소되고 민간교류의 당국 관계 종속이 심화됨. 남측 정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교류 재개 시도가 있기는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남북교류의 실질적 문제로 대두됨.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여섯 차례 진행되고, 수장고 조성, 전시회 등 부대 사업이 진행되며 확장되었음.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2007년에 합의해 이어진 사업으로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가 201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10년 한일병합 100년 남북공동 학술회의(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사편찬위원회 공동주최)가 진행되었음.
- 동북아역사재단의 제3국을 통한 교류(옥도리 고분 발굴), 씨름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이 추진한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남북러 발굴조사 등이 이 시기에 진행되었으나 남북관계, 국제관계, 코로나 대유행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못함.

2005년,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 합의

- 11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를 계기로 세계유산 대상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논의가 시작됨.
- 12월, 남북 실무회의를 통해 세계유산 지역 내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논의가 좁혀져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개성역사지구 남북협력에 합의함.
 - “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중)
- 2006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합의, 2007년 발굴조사 착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7년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07. 5. 15 ~ 7. 13. (59일)
- 조사지역: 서부구로읍 33,000㎡

2007년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07. 9. 3 ~ 11. 16. (75일)
- 조사지역: 서부구로읍 12,000㎡

2008년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08. 11. 4 ~ 12. 23. (50일)
- 조사지역: 서부구로읍 23,000㎡

2010년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10. 3. 23 ~ 5. 16. (57일)
- 조사지역: 4. 왕건묘지(7구역) 발굴조사, 129년묘지군 발굴조사

2011년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안원안단 및 간접복구조사)

- 조사기간: 2011. 11. 14 ~ 12. 20. (37일)
- 조사지역: 4. 안원안단 및 서부구로읍 4. 송남안단군 일원

2014년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14. 7. 22 ~ 8. 16. (26일)
- 조사지역: 5. 안원안단

2015년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15. 6. 1 ~ 11. 30. (183일)
- 조사지역: 5. 서부구로읍지구

2018년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18. 10. 22 ~ 12. 13. (52일)
- 조사지역: 6. 개성만월대 왕의 동상전각군 복제 구간 (10년굴지군 및 송남안단군 8차 조사구역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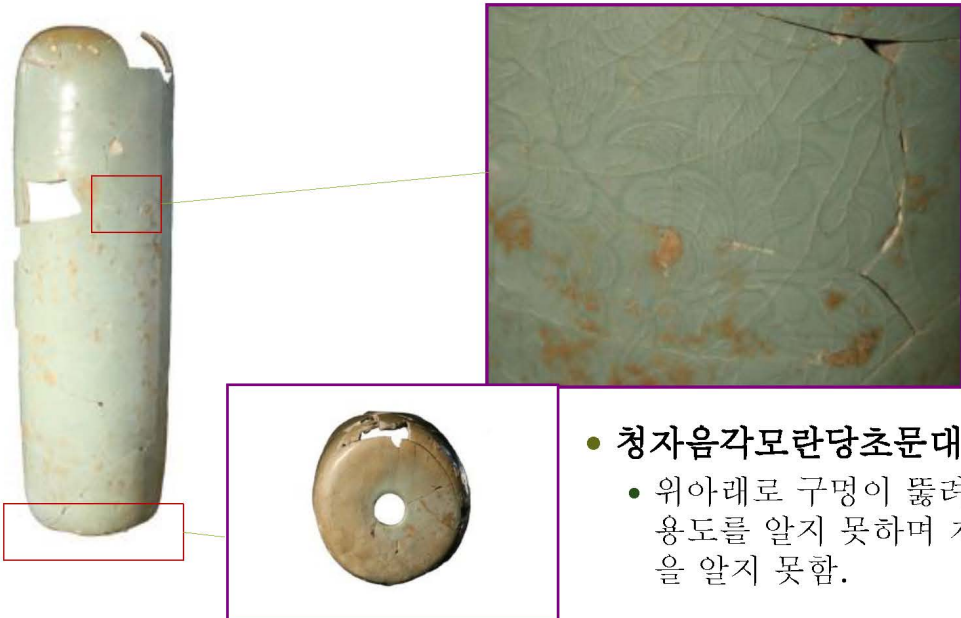


개성 만월대 발굴 성과

● 추정 경령전

● 3건물지군(추정 경령전) 발굴조사 후 전경

● 태조왕건과 왕의 4대조의 친위를 모시는 의례용 전각



- 청자음각모란당초문대형기
 -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어 용도를 알지 못하며 제작기법을 알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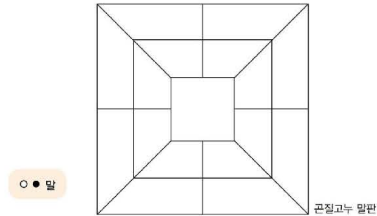


- 마루장식기와
 - 기와는 만월대 출토 유물의 95%를 차지함.
 - 장식용 잡상기와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건축 상징물의 변화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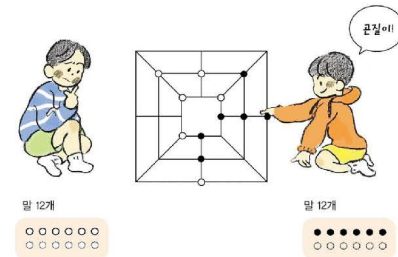


● 고누기와

- 적심 아래에서 발견되어 놀이문화 연구의 자료가 되고 있음.



○ ● 말



직지심체요절(1377년 청주 흥덕사 인쇄)



(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 자
(우)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전' 자



● 금속활자 '嫗 (추정)전일할 전, 아름다운 단' 출토

- 1956년 임천각지 서쪽편에서 금속활자 1점을 발견함.
- 2015년 발굴조사가 6개월간 진행되면서 금속활자 발견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임천각지 서쪽편에서 금속활자 조사를 진행함.
- 2015년 11월 가로 1.36cm, 세로 1.3cm, 높이 0.6cm 크기의 금속활자가 출토됨.
- 2015년 11월 30일 남북공동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6년 이상 앞선 고려 금속활자임을 확인함.
- 2016년 북핵실험 이후 발굴조사 중단으로 북측 단독 활자조사 진행하여 금속활자 5점을 추가 발굴함.
- 2016년 출토된 '嫗(성활선)'자는 12세기로 추정되는 청자접시와 함께 출토됨.



최근 10여년간 개성의 만월대 서부진육군 중원유적들에 대한 집현적인 조사과정에 동형청자점시와 고려자기토시는 처음으로 쓰이는 원통형청자도 발굴되었다. 아름다운 비취색을 띠고있는 동형청자점시안에는 금이 채워져있고 그 속에 한층의 금속활자가 박혀있었다. 점시는 10개의 돌이 팔각 리아나는 모습으로 형성되었는데 야구리에는 너비가 1cm되는 길이 달려있으며 야구리직경은 10.5cm, 높이는 2cm, 밑직경은 5cm이다. 점시의 안쪽면에는 도안화인 10개의 작화부위가 동우채색되었고 야구리정에는 네 줄무늬가 간결화면에서도 쉽게 식별된다고 볼수 있다. 만월대 서부진육군에서 발굴된 이채한 유물들은 우리 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물질적자료들을 더욱 풍부히 해주고있는의 해당 사기에 원통형청자의 같은 새로운 장식용지기도 한관계확비였다는것을 알 알수 있게 하는 동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민족의 고려자기와 관련한 학술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꽃형청자점시와 원통형청자

해계 세겨져있으며 점시안쪽에 유물에 금이 채워져있고 그 둘레에는 5개의 작은 구석만점시들이 남아있다. 원통형청자는 몸체가 거의 직경으로 되어있으며 손부분과 아래부분의 중심에는 직경 3.7cm의 구멍이 나있다. 크기는 높이 65cm, 폭직경 20cm, 밑직경 18cm정도이다. 동체전면에는 관직화면으로 상투하게 형성된 모란꽃과 냉죽이 채워져있으며 세 줄무늬가 아름다운 비취색을 띠고있다. 식별은 주저보지화주시기 식별에 들어가기는 종결반으로



개성 민속여관
북측 조사단 숙소와
남북조사단 식사

(우)도시락배달과
(좌)회식



(위) 여름 간식 아이스크림, 개성 특산 우메기, 개성 약과
(아래) 개성 만월대 조사단 현장 도시락



남측 조사단 숙소와
남북 조사단의 출근 풍경



발굴조사의
시작



그리드치기



시작을 알리는 첫삽뜨기 행사



제토



유물출토

유물세척



유구
실측



유물정리



유물대장 작성

유물대장(부속)									
구분	유물명	수량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소재
1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2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3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4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5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6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7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8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9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10	고려대	1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기록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요인

- 고려왕궁 만월대에 대한 북남공동발굴정형과 그 의의(손수호, 조선고고연구 2016년 2호)

고려왕궁 만월대에 대한 북남공동발굴정형과 그 의의

박사 손수호

본문은 2016년 2월 15일 발행된 『조선고고연구』 2016년 2호에 실린 '고려왕궁 만월대에 대한 북남공동발굴정형과 그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고려왕궁의 만월대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요인을 다룬다.

고려왕궁의 만월대는 고려시대 수도 개성의 중심지였다. 이 곳은 고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러나 이 곳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많은 유물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논문은 이 발굴조사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요인을 다룬다.

이 논문은 2016년 2월 15일 발행된 『조선고고연구』 2016년 2호에 실린 '고려왕궁 만월대에 대한 북남공동발굴정형과 그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고려왕궁의 만월대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요인을 다룬다.

본문은 2016년 2월 15일 발행된 『조선고고연구』 2016년 2호에 실린 '고려왕궁 만월대에 대한 북남공동발굴정형과 그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고려왕궁의 만월대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요인을 다룬다.

“7차례에 걸치는 만월대공동발굴을 통하여 우리는 도식적이며 규범화된 궁전건축의 틀에서 벗어나 지형지세와 건물의 기능에 맞게 다양하고도 자유분방하게 설계된 고려왕궁의 건축구성상특성과 지형지세와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통일국가의 위용에 맞게 왕궁을 화려하면서도 위엄있게 건설한 고려건축의 특징 그리고 모든 건축구성이 째이면서도 서로 통일을 이루도록 건물들을 배치한 당시의 높은 건축술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게 되었을뿐아니라 고려왕궁-만월대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부히 가질수 있게 되었다.”

• 남북 간 역사 연구의 공백을 연결하는 시도

“... 만월대는 고려궁성이 있던 곳이다. 조선왕조로 본다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있던 자리다. 500년을 버틴 고려왕조 심장부. 지금까지 고려사 연구가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이런 심장부가 북한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겨우 두 달 동안, 그것도 본격 조사라기 보다는 지표를 걷어내는 시굴조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만월대는 고려사의 많은 면모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이는 ‘중심’을 도외시한 연구가 얼마나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8월 2일 연합뉴스 <만월대 ‘위기의 고려사’ 구할까?> 중

• 단발성, 이벤트 중심의 교류에서 장기적 과제로 남북교류의 질적 전환

“이 공동발굴사업은 **남북학술교류 가운데 유일하게 30년 이상의 장기전망을 갖고 진행되는 지속사업**이라는 큰 특징을 지닌다.”
- 정태헌, <남북 역사학(자)교류와 역사인식의 공존을 향한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12호

- ➡
- 서로에게 필요한 일
 - 사업 주체의 의지와 역량

남북교류의 환경 변화와 대응 모색

- 기존의 남북교류는 남북이 모두 자기 주도적 통일의 방편으로 사고
 - 북한은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막기 위해 ‘모기장’을 튼튼히 치라는 주장과 남북교류를 동시에 진행하며 제한적으로 대응함.
 - 남한은 흡수통일과 힘의 우위를 전제하는 시혜적 입장을 가지고 남북교류를 대응해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같은 교류 사업도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 북한의 ‘교전적 두 국가’ 입장은 북한이 기존에 고수해오던 통일노선의 폐기로 봐야하며,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향후 변화는 불가피함.
- 남한 사람들의 이해가 통하는 남북교류
 - 기존 남북교류는 북한이라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속성으로 인해서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중, 상호간 필요와 이해가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주체간의 신뢰와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 왔음.
 - 남북 상호간의 필요와 이해를 맞추는 과정은 사실상 남한 내부의 이해보다는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남한에서 수용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한 내부에서 폭넓은 이해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분단 체제 속에서 이뤄지는 교류 사업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관 주도성을 높이거나 남한 내부에서 경제적 이해로 전환되는 결과로 이어져 정치적, 경제적 전환 국면에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
 - 또한 이런 특성들은 북한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다는 남한 내부의 비난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
 - 남북교류의 시선을 남한 국민을 향해 더 넓혀서 국민적 관심이 있을만한 사업 아이템 발굴 뿐 아니라 이미 진행되거나 되어 왔던 교류의 성과를 공유하는 폭을 넓혀 가야 함.

- ➡
- 민간교류의 주도성 강화
 - 남북교류의 안정적 환경 조성
 - 홍보교육 강화

남북문화유산교류의 환경 변화와 대응 모색

- 북한의 문화유산 분야 대외교류
 -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제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 포함)법제 정비를 지속해 남한 및 국제사회와 제도적 호응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04년 고구려고분군을 중국과 함께 문화유산으로 등제한 이래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문화유산), 2014년 아리랑(인류무형유산),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인류무형유산), 2018년 씨름(인류무형유산, 남북공동등재), 2022년 평양냉면 풍습(인류무형유산), 2024년 조선왕자립 풍습(인류무형유산), 2025년 금강산(복합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고, 2024년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해준 상태임. 또한 잠정목록으로는 도함산 및 일대 역사유적, 평양역사유적지구, 구장군 일대 동굴, 철보산이 등록되어 있음.
- 남북문화유산교류의 현재
 - 남북문화유산교류는 공동의 이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제교류 역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분야로 '두 국가'로 규정된 현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교육으로 남북문화유산교류는 대중적 관심과 친밀도가 높은 분야이며 관광과 연결이 가능해 학술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교류 성과의 폭넓은 확산이 가능함.
 - 다만 2018년 대교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구체 발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때에도 국내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점이나 태풍국 철원설발굴과 같은 경우 우리 국가유산 관련 법제의 적용에 대한 문제 등의 경우를 볼 때 우리 법제도를 강제할 수 없는 북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는 문화유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을 지님.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이 중단과 재개를 지속하였음에도 장기 지속사업 모델로 안착하였기 때문에 문화유산교류에 대한 계획과 상상이 공동발굴과 세계유산 관련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남북문화유산교류는 통일과 통합의 중간 다리, 평화적 분단 상태의 관리라는 면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평화적 분단 상태의 관리를 우선 과제로 두고 남한 내부에서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문화유산교류의 민간 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 환경 조성
- 전시, 홍보, 교육 등 국내 사업 활성화
- 남북문화유산교류 제도화를 통한 북한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있는 교류 방향 수립
-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교류부터 단계별 시도

제1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발표 3

선군을 넘어 과학기술 중시 애민으로 : 김정은 시대(2012~24) 문학의 쟁점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강사 약력]



현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성균관대 국문학 박사

<주요 연구-저서>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사 (2024)

북한문학비평사 (2021)

2025.8. 김성수

선군을 넘어 과학기술 중시 애민으로

- 김정은 시대(2012~24) 문학의 쟁점

김성수(성균관대)

1. 머리말 : 선군 문학의 쇠퇴와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의 복귀

2025년 8월 현재, 남북관계는 1994년의 남북합의서 이전으로 퇴행한 ‘신냉전’ 차원을 지나 초유의 절멸상태에 빠졌다. 한(조선)반도에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반영구 고착되었다고까지 할 수 있다. 내년 초의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도 예견된다. 2023년 말의 당 8기 9차 전원회의부터 최근 일련의 김여정 담화까지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 복원도 남북대화도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남북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한조관계’로 일컬을 만하다. 북조선 김정은 정권이나 2025년 출범한 남한국 이재명 정부 사이의 그 어떤 소통도 부재한 채 미국과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고했던 분단과 냉전체제의 피해자이자 그에 맞서 남북 소통과 통일운동에 주력했던 대항세력, ‘남북한 민중’은 사라져버렸다. 인민대중도 시민사회도 파편화, 다중화되었다.

지금처럼 북한/북한문화예술 연구·연구자의 위기의식이 극심할 때는 더욱이 새로운 논의가 쉽지 않다. 북한·통일문학이나 문학적 통합 관련 논의가 정세 변화에 민감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벼랑 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예술은 현실에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상상을 속명적으로 계속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 원전을 처음 접한 1986년부터 마흔 해 가까이 코리아 남북 문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처럼 위기가 닥치면 늘 처음으로 돌아갔다. 분단과 냉전의 기원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다시 차분하게 문제를 되짚어보곤 한다. 북한/문학의 출발과 김정은 시대 문학의 흐름을 역사주의적으로 돌아보면 돌파구가 새롭게 보이기도 하니까.

북한, 북조선의 문학은 사회주의 문학이다. 건국 초에 레닌적 당(黨)문학론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주체사상의 유일체계가화가 시작된 1967년부터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유일한 전통으로 삼고 ‘수령론’에 기초한 ‘주체문예론’으로 단일대오가 되었다. 주체문학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 후반 한때 ‘3대혁명소조원, 숨은 영웅’을 형상화한 ‘사회주의 현실 주제’ 중심의 리얼리즘 세태 문학도 적잖게 나왔다.

1990년대 초의 현실 사회주의권 몰락과 김일성 사망 후 체제 붕괴 위기를 맞자 선군

통치와 국방위원회 체제를 통해 수령에의 충실성, 당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김정일 집권기(1994~2011)에는 주체문학의 변형태인 ‘선군(先軍)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른바 선군 시대(1994-2011)는 노동계급의 당 중심인 정상적 사회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였다.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통치기구인 국방위 체제 하에서, 인민군대 장령, 군인 영웅, 혁명적 군인정신을 갖춘 생산현장의 선군 투사, 청년도로 건설자 등이 문학예술의 주요 형상 대상이었다. 가령 박운 장편소설 『총대』(2003)의 주인공 유진성 장령, 한웅빈 단편소설 「스물한 발의 포성」(2001)의 선군 투사가 대표 사례이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혁명)문학 담론의 역사적 추이를 정리하면 문예 창작과 비평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하는 주객관적 열악한 상황에서,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해 자력갱생하자는 통치 구호가 차츰 이념이 되고 다시 사상 내용을 미학 차원으로 승화시키려 하였다. 처음에는 문예 창작에서 군대식 특징이 소재적 차원으로 수용되었지만 차차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다가 미학적 차원까지 격상하였다. 다만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문학'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¹⁾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정권 들어 선군의 잔영이 사라지고 이전의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복귀하여 정중동 속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13년간(2012-24)의 3대 세습 정권기 북한문학의 전개과정을 주요 쟁점별로 간략히 정리해 본다.

2. 선군(김정일 통치기)과 차별화된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

2.1. 애민 청년 지도자의 이미지 만들기

김정은 집권기의 북한문학은, 2011년 12월 17일 급사한 아버지 김정일 집권기를 상징하는 ‘선군장정 천만리’ 슬로건과 뚜렷하게 차별화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 형상은 김정은이란 청년 지도자의 수령 형상이 부조 이미지를 계승하되 ‘인민생활 향상’이란 자기만의 특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하는 역동적 문화정치와 관련된다. 김정은 시대가 아버지 시대를 그대로 계승-모방-재현하려 했다면 ‘선군 투사’가 문예 형상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2025년 현재의 시선으로 지난 13년간의 집권기를 돌아해보면 김정은 시대의 문예 형상 이미지는 부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3대 세습 정권이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체제를 다진 후 자기 시대를 구가하게 되기까지 북한문학의 전반적인 동향은 정중동이라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 문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명제의 상징을 통해 부조(父祖)의 권위를 성공적으로 승계하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화 또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1) 김성수, 「북한의 ‘선군혁명문학’과 통일문학의 이상」 『통일과 문화』 창간호, 통일문화학회, 2001.; 「김정일 시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선군(先軍)시대 ‘선군혁명문학’의 동향과 평가」, 『민족문학사연구』 2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5.4.

2013년 하반기부터 김정은 캐릭터를 우상화한 소설이 창작되어, 『단편소설집 : 불의 약속』(정기종, 김하늘, 윤경찬 외, 문학예술출판사, 2014)에 묶였다. 이는 김정은 개인 숭배가 본격화되었다는 뜻이다.²⁾ 가령 김영희의 「붉은 감」(2013)은 김정은의 군대 시절 에피소드를 통해 부조의 지도자 권위와 선군정치 현지지도방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내용을 통해 3대 세습 권력의 정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일선 부대를 순시하면서 감나무중대란 명칭의 유래를 확인하고 우연히 최명옥이란 동명이인 3명이 시간을 넘어서 각각 근무한 적이 있다는 기연(奇緣)을 소개한다. 이를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살아생전 부대 순시와 관련지음으로써 후계구도의 정통성을 ‘운명적 필연’으로 형상화한다. 표면적 주제는 김정은도 부조(父祖)와 마찬가지로 인민과 병사를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이다. 김정은 집권기 초반(2012-15)의 문학을 통해 볼 때 새로 등장한 청년 지도자는 자기만의 독자 이미지를 형상적으로 구축한다. 부조 같은 혁명, 전쟁, 건설, 선군 업적이 부족하기에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향점이 생물학적 ‘젊음’에서 나온 애민 담론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 사탕 한 알 변변히 먹이지 못하는 것이 / 제일 가슴 아픕니다 / 이제 그 애들이 크면 / 사탕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해 / 이 눈보라를 헤쳐가는 /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라고(중략...)//
밝게 웃어라 / 마음껏 뛰놀거라 / 사랑의 손풍금도 안겨주시고 / 야외빙상장, 물놀이장 /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유희장도 주셨습니다//³⁾

새 지도자가 지닌 친근함과 청년·아이들을 향한 미래 이미지란 대중이 절대 권력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청년과 어린아이를 통해 미래를 기약하는 메시지를 환기한다. 젊음은 김정은만의 차별화 전략이기에 문학이 일종의 정치적 상징 신화로 작동할 수 있었다.

항일 빨치산과 6.25전쟁의 투사(김일성), 문예혁명을 통한 선동선전과 선군혁명을 통한 전사(김정일) 이미지를 지닌 강성 이미지 대신 김정은이 택한 전략은 ‘친근한 지도자’라는 연성 지도자상이다. 그것은 ‘만성적인 벼랑끝 위기’ 전략의 산물인 선군 담론에 매우 피로해 있던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새로운 돌파구와 함께 활로를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문학이 빨치산 투쟁과 건국, 전쟁, 권력 다툼의 승리를 구가하는 투쟁가·혁명가를 노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아버지 김정일 시대 문학이 지도자 동상과 기념비 등 혁명 사적지, 고속도로와 발전소, 공장과 기업체 등 거대시설을 건설한 감격의 기념시·행사시를 헌정하는 데 바쳐졌다면, 김정은은 미래를 담보할 어린이·학생·청년들에게 고층아파트와 물놀이장·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일상을 향유하는 생활 찬가 같은 미시 담론에 호소한 셈이다.

2) 김일성, 김정일의 일대기를 수집 편찬의 장편소설에 담은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에 이어, 김정은 일대기를 그린 총서 ‘불멸의 려정’도 2020년부터 나오고 있다. ‘불멸의 려정’(1) 백남룡의 『부흥』(문학예술출판사, 2020).

3) 미상, 「우리는 영원한 태양의 아들딸」(경축시), 『로동신문』 2012.6.7, 4면.

이렇게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은 종전의 선군시대 인민군 및 선군 투사에서 실용 기술관료로 교체되었다. 선군 담론이 서서히 위력을 잃고 7차 당대회(2016.5)를 계기로 기술관료와 과학기술자, 교육자 등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각되었다. 문학적 형상으로 치면 최첨단 과학기술자, 김대 교육자 등 ‘만리마기수’로 이미지메이킹된 청년영웅들이다.

‘만리마 시대’의 전형적 캐릭터 창조에 성공한 예로 백상균 장편 『강자』⁴⁾의 창전거리 초고층 아파트용 최첨단 펌프를 자력 개발한 동주펌프제조공장 리대철 지배인⁵⁾을 들 수 있다. 그는 2016년 평양 창전거리 초고층 아파트용 첨단 펌프를 자력 개발한 기술자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5,60층 아파트의 높이와 “야! 대단하구만. 완전 로켓속도요, 로켓속도!”라면서 불과 1년 만에 건설한 속도에 감탄한다. 마치 60년대 천리마 시대처럼 ‘로켓속도’라는 예의 그 속도전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 작품이 참신한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숨겨진 진짜 문제를 드러내 해결하는 방식의 디테일이다.

그동안 “평양에 45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초고층아파트들에 필요한 첨단급 고양정 뿔프를 만들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주기계공장 기사 엄명선의 문제 제기를 받은 동주뿔프공장 지배인 리대철이 외국산 수입을 고집하는 윤상배, 리상민 등 중간 관료의 방해를 물리치고 천신만고 끝에 전량 수입했던 자국산 첨단 고성능 뿔프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198,90년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광장,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 류경호텔 등 초대형 기념비적 건축물의 외형적 과시와 건설과정의 속도전이 자부심의 근거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위 소설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의 새로움이란 부조 시대의 외형적 성공 신화 뒤의 작은 세부까지 섬세하게 처리하는 인민대중 눈높이의 일상적 성공 미담이다. 흔히 디테일에 강하다는 섬세한 시선이 특히 주목된다. 여기서 『강자』 주인공 리대철 같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엘리트는 체제 건설의 역군이었던 195,60년대식 토건영웅(삽질, 곡괭이질 잘하는) 천리마기수와 달리 최첨단 청년 과학 기술자들이다.

2.2 ‘사회주의 문명국’ 공민으로 살기

김정은 정권 1기(2011.12~2016.5) 5년간의 문학을 보면, ‘사회주의 락원(선경)’의 김정은(체제)식 담론인 ‘사회주의 문명국’ 속 ‘사회주의적 부귀영화’ 담론의 표면적 환상과 이면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여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한다. 최상, 최고란 수식어를 빼면 그 실체는 공원, 유원지, 위락시설 같은 현대적인 문화시설, 후생복지를 늘려 전쟁과 체제 대결

4) 백상균, 『강자』, 문학예술출판사, 2017.

5) 김정철, 「인생관의 견지에서 창조된 시대의 강자에 대한 예술적형상 - 장편소설 『강자』를 읽고」(평론), 『문학신문』 2018.10.20, 1면.

에 지친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군비로 안보를 극도로 강화할 수 있는 핵폭탄과 우주 로켓 개발이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문학 작품과 담론에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성공 서사가 유독 많다. 우주시대를 구가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공민의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형상화하는 문학작품이야말로 ‘핵무력과 경제 병진’정책의 예술적 반영물로 풀이할 수 있다.

가령 김정일 시대 말(2010년) 중화학공업의 16년 만의 복구 재건을 상징했던 ‘주체철, 비날론폭포, 과수바다’ 등의 이미지와는 김정은 시대 문예 형상은 외연과 내포가 다르다. ‘세포등판 축산기지, 철령과수농장의 사과바다, 룡라인민유원지(물놀이장, 수영장, 곱등어관, 수중교예),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살림집,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려명거리, 경루동...’ 등은 이전의 중화학 군수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닌 식의주 중심의 생필품과 보다 윤택한 현대식 문명국 일상을 위한 각종 레저시설이기 때문이다.

부조 시대에 “인민들이 누구나 기와집에 살면서 비단옷 입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인민 생활의 기본 목표가 김정은 시대에는 좀더 진전된 이미지로 가시화되는데, 그 실체는 최신 주택과 위락시설로 형상된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고층아파트 건설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장, 마식령스키장, 세포축산기지 치즈, 철령과수 바다’에서 일상을 즐기는 인민생활 향상을 선전하는 것이 새로운 세태문학이다.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 2기(2016.5~2020)의 문학작품을 보면 아버지 김정일 시대 선군문학과 가장 달라진 것이 바로 이 일상생활의 섬세한 실감 묘사이다. 농촌, 탄광, 공장, 어촌 할 것 없이 북한 전 지역의 전 일상영역, 직장에 걸쳐서 자발적 노동동원의 동력이 되도록 ‘사회주의 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겠다는 환상을 심는 데 문학예술이 기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부귀영화’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이다.

가령 황명성의 시 「평양사람의 금지로!」(『조선문학』 2015.8)를 보면, 평양 시가지를 ‘사회주의적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건설 노동자의 자부심이 생동감 넘친 실감으로 다가온다.

“나는 건설자 평양사람...중략.../ 원수님의 문명강국 건설의 설계도/ 불멸의 그 작전도 우에/ 결사옹위의 넋을 목숨으로 새겼기에/ 결사관철의 정신을 피가 뛰는 삶으로 정했기에// 단숨에!/ 그 기상으로 땅을 박차고 솟아올랐다/ 아름다운 강반에 닳을 내린/ 교육자들의 살림집 행복의 보금자리/ 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의 왕궁이 ...중략... 꿈처럼 황홀히 눈부시게 솟아나는/ 미래과학자거리며/ 쑥섬을 짝 채우는 과학기술전당 ...중략... 원수님의 숨결이고 진군의 보폭인/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발구름 높이/ 최후승리 총공격의 앞장에서 달려가리라”

김정은 시대는 ‘핵무력과 인공지구위성’ 개발을 통한 안보와 인민생활 향상에 성공하였다고 자임하면서 ‘강성대국(요즘에는 강성국가)’을 구가한다. 이를 위해서 전례없는 경공업과 레저산업에 주력하는 면모도 보였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는 선

군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군수산업과 중공업 우선책,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 민생(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필품 생산용 경공업, 최신 주택 및 레저 위락시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그 건설과정과 향유 인민의 감격과 환희를 시,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문학』 2023년 4월호를 보면 평양 ‘경루동 새집들이’ 기획이 눈에 띈다. 김정삼, 「문패에 얹는 생각」(38쪽)를 보면 평양 ‘경루동’에 새 집을 얻은 ‘도로관리원’의 감격을 노래한다.

“날마다 보건만 꿈만 같아 다시 보는 / 나의 집 문패 / 문패에 뚜렷이 새겨진 내 이름”
“전설 속의 신선들도 부러워할 / 최상급의 현대적인 다락식주택 /
휘넓은 살림방들과 침실 서재 응접실... / 령롱한 구슬들로 눈부시게 장식한듯 /
새뜻한 부엌 세면장 샤워실...”
“평범한 근로자가 행운아가 되어 / 더 큰 행복을 누리고 /
귀중하신 아버지 / 멸사복무의 강행군길 쉽 없이 이어가시는 /
조국의 모습이 사무쳐오는 / 아, 우리 집 만복의 문패”

이는 평양 최신택 신도심의 빌라주택에 주택을 마련한 도로관리 노동자의 감격을 그린 서정시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위민헌신의 끝없는 장정’을 찬양하지만, 내심은 ‘문패’ 이미지를 통한 내집 마련의 감격이다. 아쉬운 점은 최신택 주택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서정적 이미지가 기껏 고대 중세 용어인 ‘신선, 영롱한 구슬’에 머문 점이다. 도로관리 노동계급의 눈높이 상징일 것이라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육자 기술자 같은 중산층의 새 주택 감격은 어떻게 표현될까? 경루동 이전에 이미 평양 창전거리와 만수대 언덕거리, 려명거리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국가 발전에 공이 큰 과학기술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등이 ‘고급살림집’을 배정받았다. 류명호 시, 「우리집은 려명거리에 있다」(『조선문학』 2017년 5월호)를 보면, 최고급 고층아파트 입주의 감격을 그럴 때 ‘축구장 같은’ 넓은 거실이라 노래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급호텔에 들어선 듯/ 드넓은 방들엔 해빛이 구울고/ 아늑한 침실이며
고요한 서재/ 희한한 식사실이며 정갈한 위생실/ 돌아보는데도 한참이나 걸리는/ 아, 이렇게
황홀한 집이 우리집이란 말인가!//
눈을 뜨고도 꿈만 같다/ 아이들은 축구장 같은 전실에서/ 좋아라 웃고 떠드는데/ 안해는 현
대적인 부엌에서 나을 줄 모른다/ 갖가지 세간들을 어루만지며/ 수도를 틀어보며/ 가스콘로
를 켜보며 그저 운다 운다//

이렇듯이 김정은 시대 문학은 전통적으로 혁명적 노동자·농민과 군인을 중시했던 부조(父祖)와 달리 청년, 과학기술자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기에 문명의 혜택을 청년 지도자의 은혜로 받아들인 입주민들은 환희와 감격에 들떠 있다. 려명거리 아파트에 입주한 교육자, 과학기술자가 축구장으로 비유한 감격을 도로관리공은 영롱한 구슬로 묘사한 점이 대조적이다. 하지만 둘 다 “전설 속의 신선들도 부러워할 / 최상급의 현대

적인 다락식주택” “우리 꿈에서나 그려보던 지상락원/ 천하제일 려명거리”라는 찬사는 상투적 언술이고 상상된 이미지는 너무 상투적이고 낡았다. 말하자면 김정삼과 류명호 시는 이전보다 진전되지 못한 고답적 작품이라는 뜻이다.

김정은 시대 문학의 새로움은 감각의 갱신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김정은 시대의 새로움을 잘 보여준 신진 작가 럼예성의 단편소설 「사랑하노라」(2018)이 주목된다.⁶⁾

그때 누군가의 억센 손길이 내 어깨를 왈칫 잡아챘다.

나는 그 사람의 윤기 도는 까만 구두를 보았다.

오늘은 웬일인지 온통 흠투성이로구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소? 누가?”

정인의 목소리는 아픔에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저 하나의 머리쯤이야 뭐라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조선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만 있다면 이런 실험은… 백 번이라도 하겠어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한 방울, 두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정이…!”

뜨거운 그 목소리에 몸을 흠칫했다.

타는 듯한 그의 두 눈이 나의 한심해지고 처참해진 머리를 가슴 아프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나의 자그마한 손을 꼭 잡는 그 억센 손의 따뜻함….

심장이 전율하듯 요동쳤다.⁷⁾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파마약 같은 화장품·기호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주의적 문명국’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된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선군’ 같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부르주아적 사상 감정의 잔재로 오해받을 법한 ‘청춘 남녀의 애정 갈등’도 서사에서 중요한 몫을 한다. 거기 더해 자력갱생형 우주개발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여 국가적 자부심도 갖는다. 바로 이런 발상이 최근 북한문학에 나타난 청춘 남녀의 내면 풍경일 것이다.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공화국 국민의 머릿결에 잘 맞는 자력갱생형 파마약을 고심 끝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애정도 무르익어간다는 연애서사가 인상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은 또한 ‘핵 보유 강소국’이란 자부심 위에서 작동되고 있다. 2006년의 제1차 핵실험과 2012년 ‘인공지구위성’ 발사 성공 이후 2017년에 수소탄(제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잇달아 성공하자 자신들이 ‘지구라는 행성의 주인이고 대표’라는 식이다. 2018년 벽두의 권두시, 박정철의 「조선의 한해」(『조선문학』 2018.1)를 보면 핵 보유, 강소국의 자긍심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우주만리 날아오른 우리 화성들/ 최후승리의 아침을 향해/ 힘차게 뻗어간 눈부신 그 궤도 우에/ 밝아왔구나/ 희망 넘친 강국의 새해//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전구들마다/ 다투어 태어나는 만리마신화들/ 이 땅 이 하늘 아래 불러냈구나/ 사회주의진군가 더 크게 터져오를/ 대기적 대비약의 새해//

6) 「사랑하노라」 분석 부분은 다음 평론을 참조.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사랑과 일상의 행복」, 『21세기문학』 2018년 겨울호.

7) 럼예성(인민보안성 작가), 「사랑하노라」, 『조선문학』 2018.3.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무적의 군력으로/ 조국이며 앞으로!/ 위대한 당의
호소 따라/ 천만심장이 열어제낀 승리의 대령로/ 오, 2018년//
(중략) 수소탄이며 대륙간탄도로켓.../ 이 행성 최강의 힘을 지닌 인민/ 최상의 문명도 최고
의 행복도/ 절세의 령장을 모신/ 우리 조선인민의 것이 되리라//

김정은 시대 2기 문학의 특징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과거를 회상, 기념하여 과거
전통의 계승을 내세우는 한편, 어린이, 청년, 과학자를 중심으로 새 세대에 대한 미래
담론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체와 선군’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던 부조의
전통을 계승하되 그들과는 차별화된 김정은 시대만의 특징인 ‘애민’ 담론을 ‘사회주의
강국/문명국’의 자신감으로 한껏 표출한다.

2.3. 청년 과학기술자 중심의 ‘만리마기수’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전후로 한 김정은 시대 3기 문학은 당
정책인 ‘인민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담론과 ‘코로나19(신종코로나비루
스감염증)’ 팬데믹 방역을 통한 ‘인민의 안녕’ 담론을 선전하는 것이 표면적 주제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 1기(2011.12~2016.4)를 대표했던 ‘핵무력과 경제 병진책, 모란봉악
단의 창조기풍, 마식령속도’나 2기(제7차 당대회, 2016.5~2020.12)를 대표했던 ‘만리
마속도, 만리마기수’ 형상론과 차별화된 3기 문학만의 특징이다.

8차 당대회 전후(2019~24)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은 ‘과학기술, 청년, 방
역, 생태’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전 제7차 당대회(2016.5) 이후 김정은
시대 2기의 ‘만리마속도 창조운동, 만리마기수 형상’과 달라진 부분은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 붉은 보건 전사’ 같은 구체적 형상이다. 아동, 청년 등 후속세대 미래세대를
중시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1기(2012~16)와 동일하지만 선군 잔영이
소멸되고 첨단 과학기술이 강조되며 인민경제 발전과 별도로 방역 현안이 등장하였
다.

김정은 시대 2기의 문학적 주인공인 만리마기수는 3기에 들어서면서 시대의 선구자이
자 “과학기술 룡마 탄 컴퓨터 기사”인 청년 과학기술자로 다채롭게 그려진다. 가령
김철(김책제철소) 용광로를 관리하는 노동자도 예전처럼 혁명적 열정으로 고난의 행군
을 이겨낸 백전노장 지배인 아바이나 근육질의 제대 군인 분조장이 아니다. 청년 기
술자, 심지어 처녀 과학기술자가 종합조종실에서 공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는 액정 화면을 보고 컴퓨터로 계산된 중앙제어처리장치로 생산공정을 관장한다. 고
위험 중노동의 상징이던 예전과 달리 CNC로 원료장부터 용광로를 거쳐 철강 생산까
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령 박금실의 「김철의 용해공들 속에서」(『문학신문』
2023.1.7)란 시초를 보면, ‘김철’ 노동자를 ‘룡마 탄 기수’로 형상화하고 있다.

로상에 오르니/ 김철의 룡마 저 용광로/ 그 날개 우에 내 높이 오른 듯//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리 힘 우리 지혜로 쌓아올린 산소열법용광로/ 기적과 위훈의 나래로

뿔나니//

낮이나 밤이나 쇠물로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불태우며/ 5개년계획의 승리봉을 향해가는 김철의 용해공들/ 자력갱생 룡마의 기수들이다

‘ 룡마 ’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진 용광로이되, 수입산 코크스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도록 개량된 산소열법이라는 자력갱생 기술을 강조한 ‘자력갱생 룡마’이다.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만리마기수란 이 경우 룡마 탄 기수이되, 토건시대와 차별화된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전문직 기술자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과 혁명적 열정만 가지고 위험천만한 용광로 작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정교한 컴퓨터 제어기술을 가지고 용광로를 비롯한 제철공정 전체에 관여하는 것이다. 김철의 룡마 탄 기수들은, 종합조종실에서 한 벽을 짝 채운 액정화면을 보면서 용광로 안에 “타끓는 쇠물과 함께 무수한 수자들도 부글부글 끓네// 헛눈 한번 팔 새 없는 조종공들에 의해 / 로의 온도며 색깔이 달라지고 / 쇠물의 톤수도 오르내린다니 / 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고 노래하는 컴퓨터 조종공들이다. 그들은 현장 노동자처럼 얼굴에 흐르는 땀은 없어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 땀이 보이네/ 과학기술로 로(爐)의 숨결 높여가는 이들이 / 산소열법 용광로의 진짜 주인들 아니랴”라고 자부한다.

제철소 용광로는 온도가 매우 높고 불길이 워낙 강해 현장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세고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만리마 시대에는 제철소 소성로에서 연약한 처녀 기사가 컴퓨터를 활용한 무인시스템으로 공정을 처리한다. 제철 노동자인 서정적 자아 스스로 ‘만리마 시대의 선구자’라는 추상적 이데아와 ‘과학기술 룡마 탄 컴퓨터 처녀’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결합시켜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독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다.

김은경의 단편소설 「보조설계가」(『조선문학』 2022.2)를 보면, 유학과 미녀 과학자가 컴퓨터 3차원 모의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기계 설계를 제안하지만 현장 반장에게 수입산이라 반박당해 자국산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주인공 진아는 기계 제작자로선 희귀한 유학과 출신 미녀로 선망의 대상이다. 효화력발전연합기업소 단열벽돌 생산공정 현대화사업의 성형기계 설계가로 임명되어 실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유압식 성형기 설계안은 생산반장에게 제지당한다. 성형기계의 핵심은 일정압을 유지하는 것인데 국산 전동식은 질을 보장할 수 없어 수입산 유압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장이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 “번쩍거리는 걸 그대로 가져다 조립해놓고는 이게 현대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수명이 다 되면 다시 비싼 값으로 사오고 그 나라들에서 팔지 않겠다면 기계를 멈추고... 그런 식으로 현대화된 기계들이 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현대화라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온갖 고생 끝에 수입산 유압식 기계 대신 자국산 전동식 기계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룡마 탄 컴퓨터 기사’라는 이미지 속에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결합한 자력갱생형 청년 과학기술자의 품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을 보면, 전에는 파편적 나열적 추상적으로 그려졌던 만리마기수 형상이 ‘과학기술 룬마 탄 컴퓨터 처녀’라는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화된 이미지로 선명하게 전경화된다. 그들은 용광로를 다룰 때도 농사를 지을 때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 때도, 천리마운동시기(195,60년대) 토건시대 노동영웅 선배들처럼 무조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노동현장에 전투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방직공이든 농업노동자든 어로공이든 상관없이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은 시대 문학의 주인공은 이들처럼 생산과정 전반을 사전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후 생산현장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는 CNC 기술을 발휘하는 과학기술의 첨병, ‘룬마 기수’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초기 건인차였던, 삽질 잘하는 토건 노동영웅, 천리마기수의 버전업이자 변형이되 그들과 차별화된다. 중간에는 ‘3대혁명소조원’이란 캐릭터가 놓여 있다. 혁명적 열정은 강한데 생산현장의 기술적 처리나 기계 조작 등 전문성이 모자랐던 1960년대 노동영웅 천리마기수에서 진전된 캐릭터가 바로 7,80년대 대표 캐릭터였던 ‘3대혁명소조원’ 형상이었다. 그들은 생산분야의 기술적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 기술자들이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는 7차 당대회(2016)를 통해 노동계급이 군(軍) 대신 체제 중심으로 복귀하였다. 이 시기 소설문학을 보면, 2016년에 시작되어 8차 당 대회(2021)을 거쳐 2024년까지 공장, 농장, 어촌뿐만 아니라 제철, 금속 등 중공업 생산현장까지 뛰어든 청년 과학기술자를 새로운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엘리트 형상으로 그렸다. 가령 서청송 단편, 「기폭에 빛나는 별」(2019)을 보면, 체육성 부상의 관료주의와 무역회사 사장 사이의 외국산 식료품 사용권 갈등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조정한다.

“내가 자료를 보니 최근에 세계적으로 체육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를 하면서 껌을 씹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합니다. 껌을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 갈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체육선수들에게 껌을 공급해주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체육인껌을 씹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무엇을 하나 하여도 꼭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여야 합니다.”⁸⁾

당-국가를 주도한 권력엘리트들은 군 절대우위였던 선군 시대를 대표했던 ‘선군 투사’ 형상을 내세웠던 집단이 약화 쇠퇴하였다. 대신 노동계급의 당이 주도했던 당 간부-국가 관료가 권력엘리트로 복귀하였다. 당 간부-국가 관료층은 권력 심층부로 복귀하자 이전의 직선적인 선군 이념 절대시보다 실용노선으로 변모를 보였다.

정창혁 단편, 「무성한 잎새」(2022)을 보면, 어느 지방식료공장 종업원의 일상적 편의도모보다 외형적 생산실적 달성에만 목을 맨 중간관료 지배인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업작풍을 비판한다. 현재 관리국 부국장인 화자는 12년 전 자기가 지배인일 때는 늘 1등으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했다가 지금은 실적이 미진해진 형봉식료공장을 시찰한다. 지배인 유금주와 책임기사 허일국이 기존의 생산실적 초과달성이라는 ‘보여주기 사업’식의 성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종업원의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사내 목욕탕, 폐

8) 서청송, 「기폭에 빛나는 별」(단편소설), 『조선문학』 2019.1, 7~12면.

당밀 주정, 태양광 발전기 등 편의시설을 신축 보수하는 바람에 실적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다 보니 실적에만 급급했던 자기가 갈등 제공자라는 진실을 알게 되는 오이디푸스 탐색 서사가 이채롭다.⁹⁾

그들은 김정일의 선군통치기 ‘선군문학’처럼 소설 주인공이나 스토리 플롯의 중심선에 표면화되기보다는 작품 주인공에서 거의 사라졌다. 군인-선군 투사 주인공 대신 1960년대 노동영웅인 천리마기수를 다시 소환한¹⁰⁾ 과학기술 노동영웅인 ‘만리마기수’ 형상이 김정은 시대 엘리트를 대표하였다. 2020년대 들어서서 만리마기수 형상은 ‘과학기술 룡마 탄 기사’와 ‘붉은 보건전사’(소설은 아직 못 찾음) 형상으로 좀더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3대혁명소조원’처럼 컴퓨터로 CNC 기술을 발휘하는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데다가 ‘천리마기수’처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과 주변의 부정적 인물까지 감화시키는 품성까지 갖췄다. 그들 ‘과학기술 룡마 탄 기사’인 만리마기수의 특징은 천리마기수의 ‘정신’과 3대혁명소조원의 ‘기술’이 결합된 위에 컴퓨터 제어라는 ‘첨단과학’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말 현재,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새시대 천리마정신’이다.

3. 김정은 시대 문학의 전반적 특징

글을 마무리하면서 김정은 시대 문학사의 쟁점을 정세, 매체, 문예노선과 이념, 전통, 미학, 주제, 전형 등 유의미한 쟁점별로 횡단 분석해 보자. (1) 정세 변화를 보면, 2016년의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전의 폐쇄형 선군 통치, 선군문학에서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자리잡았다. 다만 2018,19년의 개혁개방 실패 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자력갱생형 폐쇄 국가로 퇴행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핵무기와 우주로켓, ICBM을 보유한 ‘사회주의 강(소)국’을 자임하게 된 사실이다. (2) 매체사적 변화를 보면,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조선예술』 등 문예미디어 6종의 아날로그(종이잡지)와 디지털(pdf파일) 보급 유통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플랫폼/미디어의 문명사적 변모에 부합하는 콘텐츠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3) 문예노선과 이념의 변화를 보면, 김정일 시대를 이어 김정은 시대 초까지 풍미했던 선군 담론(1999~2015)이 소멸하고 노동계급의 당 중심 사회주의체제로의 복귀를 반영하는 주체문학이 복원되었다. (4) 문학사적 전통 측면을 보면, 2000년대를 풍미했던 선군문학(지금은 선군시대 주체문학으로 지칭) 대신 197,8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던 주체문학 및 1990년대의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복귀하였다. 1960년대의 천리마

9) "과거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저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돌격구령을 웨칠 줄이나 알았지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입김으로 녹여주고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나의 노력으로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정창혁, 「무성한 잎새」(단편소설), 『조선문학』 2022.5, 51-61면.

10) "새해 정초부터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창조된 새시대 천리마정신이 온 나라에 대중적 위훈의 불길로 세차게 번져가는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한 작가들의 작품들로 신문의 지면을 채우"고 있다, 편집국, 「편집국의 말」, 『문학신문』 2024.12.14., 4면.

담론이 반세기 만에 소환되어 만리마 담론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6) 문예 창작방법과 미학도 선군시대 문학의 ‘총대미학’이 사라지고 종래의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으로 돌아갔다.¹¹⁾ (7) 문학 주체도, 선군문학 시대의 군인 작가 우위에서 전문 전업 작가 중심으로 복귀하였다. (8) 문학적 전형도 달라졌다. 선군문학을 대표했던 혁명적 군인정신의 총아인 ‘선군 투사’ 형상이 소멸하고, 대신 60년대 노동영웅인 천리마기수를 소환한 2010년대형 과학기술 노동영웅인 ‘만리마기수’ 형상이 김정은 시대 문학을 대표하였다. 2020년대 들어서서 만리마기수 형상은 ‘과학기술 룡마 탄 기사’와 ‘붉은 보건전사’ 형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종전에는 근육질의 힘센 남성 못지않은 중장비 기사로 상징되는 90년대형 만능여성 ‘준마처녀’에서 2020년대에는 컴퓨터 기사 처녀를 전형으로 이미지메이킹한 셈이다.

김정은 시대 12년 간의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등의 미디어콘텐츠를 미시 분석한 결과, 부조 시대와 차별화된 김정은 시대 문학만의 특징으로 수령 형상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난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의 강화, 인민생활 향상(애민) 담론과 청년 과학기술자 중시, 일상성 강화 등의 새로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 생산현장을 재현하되 토건시대의 혁명적 열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최첨단 과학기술 담론을 강조하고, 세대교체의 주역인 청춘남녀 캐릭터의 애정선 같은 미시적 일상을 중시하며, 등장인물 심리의 섬세한 묘사 등 문체도 변화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3)를 관통하는 김정은 시대 3기 문학은, 김정일 시대 선군(先軍)문학론의 강고한 구심에서 벗어난 1기(2011.12~2016.4)와 ‘만리마속도, 만리마기수’ 형상론을 앞세운 2기(2016.5~2020.12) 특징을 넘어서, ‘과학기술 룡마 탄 기사’라는 새로운 대표 형상과 상징 담론을 실험 중이다. 2025년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 문학은 새로운 출구를 향해 암중모색 중이다.

하지만 문학이란 당과 공식 담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나 유용한 정치선전 슬로건만으로 인생사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문학이라 해도 그렇다. 김정은 시대 복원된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이면을 좀더 따져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50여 년째 표지와 지질, 분량에 변화가 거의 없는 80면짜리¹²⁾ 월간 문예지 『조선문학』이나 4면짜리 『문학신문』을 훑어보노라면, 당 정책을 보고하는 사설, 권두언, 정론, 창작 결의, 작품들이 한결같은 단일 담화, 비슷한 콘텐츠를 이구동성으로 발화하고 있다. 여전히 지도자에 대한 고답적인 극찬과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만리마속도,’ ‘70일전투, 200일전투’라는 당 정책에 호응하여 ‘명작 창작’을 ‘폭포’처럼 쏟아내겠다는 동어반복을 조건반사처럼 표명한다.

기실 문학이나 예술은 모험적인 형식 실험 없이 새로운 내용을 담기 어려운 법이다.

11) 다만 선군 잔영이라 할 다음과 같은 슬로건은 여전히 반복된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 수 있다.” 김향(본사기자), 「시대와 숨결을 같이해온 우리의 시문학- 올해 시인들이 거둔 창작성과를 두고」, 『문학신문』 2024.12.14., 4면.

12) 1979년 이후 44년 만에 2023년부터 88면으로 증면된 문예지 조선문학은 930호에 이르렀지만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의 변모가 거의 없다.

그래서일까, 최근 작품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에 진정 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민 모두가 정규 근무시간에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한 후 여가시간에 승마를 하고 물놀이장을 즐기며 스키 타고 치즈 먹는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 있을까. 북한문학예술이 그려낸 ‘사회주의적 부귀영화’ 형상은 가시적 구체적 이미지가 부족한 점에서 어쩌면 스위스 유학생 출신 청년 지도자의 상상 속 욕망일지도 모른다. 문학작품을 통해 보건대, ‘사회주의 문명국 인민의 부귀영화’가 인민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가시적인 실현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가 내건 ‘사회주의 문명국,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란 언표는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낙원’과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 선경’의 재판일 뿐,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좌담회

- 좌 장 : 박계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발표 패널 : 김경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 토론 패널 :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한모니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blue lines on a light gray background.

MEMO

MEMO

MEMO

MEMO

MEMO